"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오늘 본문 가운데 욥기 31:15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욥이 자신의 친구들을 향해서 항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욥의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욥기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나와 욥을 동일시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 왕과 나를 동일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상황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들이 머리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과 실제 내 모습이 가지고 있는 거리 때문에 발생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머리 속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가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기도 하였고 설교를 듣기도 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의 내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릴 적을 생각해 보아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공부에 열중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것에 더 관심이 갈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실제 삶이 거리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머리 속으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 속으로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에 읽어 드린 말씀은 욥이 아주 부자로 살고 있었을 때에도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았고 힘 없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 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행한 이러한 베푸는 삶이 단순히 그가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라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신앙 때문에 욥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돕고 힘이 되어 주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기본 전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 9장에 보면 노아 때 홍수 심판 이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고기를 먹는 육식을 허락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한 가지 금하시는 것은 고기를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짐승을 함부로 죽이거나 더 나아가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금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생명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멸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한 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동시에 우리 모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한 분 이심을 기억하여서 우리들은 거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들은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죄의 본성을 타고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다면 우리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만드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